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7월

선교편지 제 112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의 행정 구역은 주(Province), 시(City), 군(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바랑가이'는 최소 지방 자치 단위로서 지역 마을 또는 특정 구역을 지칭합니다. '바랑가이'는 최고 책임자인 '바랑가이 캡틴 (Captain)'과 7명의 위원 (Kagawad)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해당 자치 구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건축, 의료, 교육, 교통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랑가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학교, 병원, 경찰, 관공서, 기업들도 '바랑가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10여년전 이곳에 정착을 시작한 후, '바랑가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좌충우돌 불필요한 수고를 많이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지역 선교'도 '바랑가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랑가이 캡틴 및 위원들과 긴밀한 (?) 관계를 유지하면, 그 지역에 속한 마을, 학교, 병원, 경찰등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만약 바랑가이와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그 지역 안으로 들어 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 대상인 주민들과 학생들 안으로 깊숙히 파고 들어가야 하는 현지 선교의 특성상, 바랑가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삶과 밀접한 바랑가이 캡틴과 위원을 뽑는 '선거'가 3년마다 실시 되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2016년에 치루어야 할 선거가 2년가량 연기되어 거의 5년만에 지난 5월 중순에야 치루게 되었습니다. 주민 모두의 삶과 직결 되는 선거이다 보니, 얼마나 심하게 과열이 되었는지, 선거와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매일 들려 왔습니다. 곳곳마다 불법 무기 검색을 위하여 많은 경찰과 군인이 동원되어 긴장감을 더하는 가운데, 뉴스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33명이 총격으로 피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간 선호하는 후보자에 따라 편가르기가 난무해져서 폭력으로까지 번지기까지 하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으로 선거권을 팔고, 사는 소식이 가깝게 들립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 위하여 수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랜동안 포장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도로에 마치 즉시 공사가 시작되어 개선될 것 처럼 공사 안내 표시가 설치 되기도 하고, 오래된 민원들고 바로 해결될 것처럼 갑자기 관심을 쏟기 시작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선거가 가까와 짐에 따라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 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배수가 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었던 '하수도' 공사가 시작 되었고, 마을 입구 일부 도로도 새롭게 포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침내 낮에도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이곳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수도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밤 11시경부터 새벽 4시경까지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밤새도록 별도의 물탱크에 물을 받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전기 펌프를 통해서 물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즈음하여 놀랍게도 낮에도 수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여,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서 예전처럼 언제 물이 그칠지 늘 불안한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교지가 속한 다바오의 바카카와 디고스 내의 마띠, 띠구만, 익핏, 아팔라야 지역의 격렬했던 바랑가이 선거도 무사히 끝나고, 평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바랑가이 내의 경찰, 병원, 학교등의 '책임자'들도 더불어 바뀌는 대 변화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선교를 위하여 오랜동안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어 왔던 각 단체 책임자들이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 거의 동시에 새 인물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랑가이가 책임자와 관계없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바랑가이와 단체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가까이 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지역 경찰이나 병원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선교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책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급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 자치 단체장 선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전체의 '주지사'와 '시장'과는 변함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지역 선교와 장학 사역에 협조하라'는 주지사와 시장의 '공문 (Official Letter)'을 받아 각 지역의 바랑가이, 학교, 병원, 경찰서등의 책임자들을 모두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각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만났는데, 우려와 달리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환영을 받고, 추진하는 지역 선교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마을과 학교에 복음의 문이 이전보다 더욱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스 1:1)**

 디고스 예일 교회는 건축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교회의 위치가 참으로 절묘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디고스 중심지와 주 정부 관청을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교회 앞을 지나고, 거의 중간 지점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 도로는 비록 포장되어 있지 않지만 주지사와 시장이 매일 출퇴근하는 길로서 디고스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존재'를 확인 시켜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디고스에는 주(Province) 전체를 대표하는 3개의 주요 대학이 있는데, 디고스 예일 교회를 중심으로 마치 삼각형의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근 '스파마스트'라는 대학만을 고려하고 장학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변의 다른 두 대학의 학생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서 출신 지역과 졸업한 고등학교가 서로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저희 장학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 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디고스 예일 교회의 주된 사역 중의 하나인 '학원 사역'에 적합하도록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원 사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익핏 초등/고등학교', '띠구만 초등학교', '디고스 고등학교'등이 교회를 중심으로 매우 편리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매주 토요일, 주일마다 학교 교정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학교를 개설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자가 흠어진 양을 찾듯이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며  
흐리고 어둡던 날에 흠어졌던 모든 곳에서 내 양을 건져내겠다. (겔 34:12)**

그런데 최근, 해변에 인접한 '아팔라야'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얼마 전까지 익핏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최근 아팔라야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익핏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행했던 어린이 사역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또한 매주 '익핏 예일 교회'로 학교 교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고, 후임 교장과도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연락을 해 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현지인 교역자들과 함께 아팔라야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팔라야'는 저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몇해 전 저희 장학 사역에 속한 학생의 집을 심방 했는데, 마을 분위기가 다른 여느 지역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량스럽게 보이는 청년들이 마을 구석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싸움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 째로 보이는 어린이들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장난들을 치며 동네를 떠들썩 하게 했던 광경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아팔라야에 사는 장학생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장례식이 패싸움터로 변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팔라야를 떠 올릴때면 무엇보다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깊이 세겨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익핏 지역 다음으로 힘을 쏟아야 할 선교지는 '아팔라야'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고, 복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팔라야 초등학교'와 더불어 '아팔라야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어린이들이 처한 것을 다시한번 알게 하시고, 이곳에 복음이 꼭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약 1,500명의 어린이와 학생을 찾으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새롭게 맡겨 주신 사역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부 사역자 2명을 보내 주셔서, 이제는 6명의 현지인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역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팔라야 지역에 예배 처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익핏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팔라야 초등학교 교정'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어린이/학생 사역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아팔라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 나고, 그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9)**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